

현대가정의 가정철학 정립을 위한 연구

A Study for Constructing Philosophy of Present Household Management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서미란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지영숙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

Master Course : Mi-ran, Seo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

Prof: Young-Sook, Chi

〈목 차〉

- | | |
|----------------------|------------------|
| I. 가정철학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V. 현대 가정의 철학적 접근 |
| II. 가정철학 연구의 학문적 의의 | VI. 결론 |
| III. 가정철학의 개념 설정 | 참고문헌 |
| IV. 가정철학의 배경 사상 | |

〈Abstract〉

This paper gropes for advisable home management principle, named "philosophy of household management(PHM)", which is presented to home managers. Philosophical thought about household can give fundamental understanding about family circumstances. So home manager can get better judgement about family things and house affairs. In that sense, this paper is expected to provide family members with the ground of thought: how to help each members' self-completion, to make better relationship among family members as well as between families and society, and to manage all environmental resources.

As the paper researches new field of home management, it presents academic significance of PHM study and the concept of PHM. Then, it explains why 'Han consciousness'-the native philosophy of Korea-is adequate for foundation theory of PHM, and what 'Han philosophy' is.

In conclusion, the paper argues necessity of view for home management, and discusses (1) view of human being, (2) view of economic activity, and (3) view of natural environment as family resources.

I. 가정철학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정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만들어 내는 기능이다. 인간을 만든다는 이 의미는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생식적 측면 뿐 아니라, 어떤 인간성을 지닌 인간을 길러내는가 하는 훈육적 측면까지를 포함한다. 그렇기에 사회인으로서의 개인의 의미가 커지는 오늘날, 인성 형성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들어 한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폭력 및 부모살해 등의 패륜행위, 그리고 사회적인 부정부패 뿐 아니라 심지어 인재로 인하여 일어나는 각종 대형참사들의 원인까지도 참된 가정교육의 부재를 그 근본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1996:439; 경향신문, 1997, 3.27).

그러나 오늘날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정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교육의 부재라기 보다, 가정교육을 시킬 주체인 오늘의 부모에게 있어서 삶과 인간에 대한 이상적 가치의 불명료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에 치우친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남아있던 전통적 가치와 새로 유입된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들, 그리고 자본주의적 가치가 서로 정리되지 못한채 혼재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가늠하는 올바른 준거를 분명하게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부모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경제가치 위주의 사회 분위기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불명료한 이해로 인해 전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 그저 옛것으로 치부하거나, 그것의 사회적 적합성에 대해 회의함으로써, 진정 어떤 가치가 바람직한 삶의 가치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판단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가정의 주체라 할수 있는 부부의 가치부재는 가정교육의 부재를 낳을 뿐 아니라,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로 변질되어 나타남으로써 이혼, 부부 폭력, 가출, 노인 소외 등의 가족해체 현상, 그리고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부정부패, 과소비 등의 원

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지식·정보 사회로서 더욱더 다양한 가치가 공존될 전망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들이 표류하기 전에 현실적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올바른 인성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가장 밑바탕이 되는 바람직한 가치와 가정의념이 우선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최적인 생활 가치, 인간상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운영원리를 밝히며, 이런 가정운영 원리의 실천 방향까지를 가정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철학은 환경위기의 오늘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생활철학의 구체적인 양식으로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소비지향적, 향락추구적 생활태도와 생활가치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친환경적인 어떤 새로운 생활태도와 생활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정립된 보다 건전한 삶의 철학, 생활철학이 가정 내의 자원의 사용과 소비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생활을 통해 자녀들은 환경과 자원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생활양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를 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생활철학'의 개념은 가정단위에서 구체화되어 가정철학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며, 이런 가정철학은 가정에서 실천적인 생활교육으로 이어지고 가정환경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II. 가정철학 연구의 학문적 의의

가정철학 연구는 가족원의 행복한 삶을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현대사회에 이상적이면서도 실천가능한 가정운영원리를 밝히고 그 실현가능성을 제시한다는 데 본래의 의의가 있겠으나, '가정철학'이란 연구가 지금까지 소홀히 되어 왔기에 본연구는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가정학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인성개발과 가족관

계 그리고 생활자원의 필요성 및 소비, 관리에 대한 가치체계를 설립하고, 행동의 합리성을 구현하여 가정생활이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충족스러운 것이 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며, 사회변천에 입하여 역사성을 인식하고 대응과 적용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학문이다(윤서석, 1981:101). 이런 학문목적에 맞게 50년대엔 시대적으로 요구되었던 '생활의 합리화'를 그리고 70년대엔 '생활의 과학화'를 향해 학문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가치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이에 결합한 70년대부터의 '가정학의 전문성' 추구는 가정학 영역을 잘게 독립시킴으로써 큰 전체성을 상실하게 하였고, 생활의 의미를 상실한 딱딱한 과학적 연구결과만을 낳게 하였다(윤서석, 1981; 공인숙 외, 1996).

즉 가정학의 자의적 전문화 등의 이유로 그 연구 체계가 산만하고 비체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가정학이라는 큰 정체성보다는 의, 식, 주, 아동, 소비, 가족, 가정관리 등 각각의 하위영역으로 학문의 정체성이 잘게 부수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착 연구대상인 가정생활에 있어 그 본질과 총체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비판이 일고 있다.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강조만으로 가정생활의 다층적 의미를 포착해내지 못함에 따라 연구결과가 현실과 거리감이 있게 되었는데(공인숙 외, 1996) 이를 연구의 제한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키구치 후사(1996)는 가정학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적 개별과학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각 영역을 통합하고 그 통합된 전체를 인간수호의 학문이라는 목적 하에 나름의 가정철학을 정립,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가정학의 시대적 배경 하에서, 본연구는 첫째, 현시대에 가장 요청되는 것은 '생활의 합리화'나 '생활의 과학화'라기 보다는 새로운 '가정이념' 혹은 '가정운영원리'의 재정립이라는 인식 하에 가정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이끌 방향성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라 시

대적으로 요청되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한다는데 학문적 필요와 의의를 가질수 있다.

둘째, '가정철학'은 가정생활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러한 총체적 가정생활의 모습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규정하는 포괄적 특징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모호해진 가정학 본래의 정체성을 찾고자한다.

셋째, 가정철학은 가정과 생태적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생명중시적 가치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복지를 모색하는 가치철학이자 규범철학적 성격을 갖는다. 이에 생태적 측면까지 아울러 사회전체를 공동체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모색함으로써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세계는 효율성에 지나치게 치중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환경파괴와 인간소외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서구에서는 사회 유지 뿐 아니라 지구의 생존유지적 차원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동양적 개념인 '인간지속성'을 제시하고 있다(Nolen & Stover, 1993).

본연구 역시 이런 맥락에서 현재와 미래의 보다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출발을 삼고 있다.

Ⅲ. 가정철학의 개념 설정

가정철학은 家政, 즉 가정생활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거해야 하는 철학적 토대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세키구치 후사(1996)는 가정철학이 가정생활에서 지향되어야 하는 규범적인 방향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에 준하여 본연구는 가정철학의 출발을 다음에 근거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철학은 가정학의 연구대상인 가정현상에 대하여 철학적 방법¹⁾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철학의 모체는 철학이 아닌 가정학이다. 이에 가

1) 철학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철학이

정철학은 가정학적 이론의 특수한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닌다. 즉 가정에 관한 학설은 실천의 이론으로서, 가정학의 이론발생은 실천으로부터 나오며, 실천상의 필요로 이론이 전개되는 실천우위라는 특수성을 갖는 것이다(세키구치 후사, 1996:226-227). 이에 철학이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음미해 가는 것으로서, 이성을 사용하여 사고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라면(세키구치 후사:104), 가정철학은 사고를 깊이 있게 하는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생활상의 제 문제를 해명하거나 심화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그에 의해 실제 생활상에 유효한(세키구치 후사:225) 적극적인, 실천적 역할을 담고 있어야 한다.

가정현상에 대하여 철학적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즉 실천의 과정인 생활에 있어서 현상을 곧바로 볼 수 없을 때에는 사물을 잘 고찰해 볼 필요성이 생기며, 이때 실재, 즉 그 현상의 본질이나 근원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근원에 대한 이해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응용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생활의식화 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철학이란 개념에는 가정생활이 잘 운영 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점에서 가정철학은 이론과 실천,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지 않는 공유범위 내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는데 기본을 둔다.

또한 가정철학은 인간의 행복을 바탕으로 하여, 미시적으로는 각 가정 내 가족원들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가정운영원리의 발견과, 거시적으로는 이 각 가정의 운영원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의 고민에서 출발하였기에 공동

체적 원리를 저변에 깔고 있어야 한다.

이들을 바탕으로 본연구의 가정철학을 정의하면 가정철학은 가정을 운영하는 기본원리에 대한 탐구와 그 원리의 의식화 과정을 포함하며, 또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각 가정 나름대로의 도덕성, 생활규범, 생활윤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향까지를 제시해 주는 실천철학, 응용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철학은 정립된 철학을 보여주는 철학(philosophy)의 형태가 아닌, 가정운영의 주체나, 가족원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철학하는 행위(philosophize)의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철학'은 가족원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가정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운영이념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포함하며, 또 그 이념과 가치가 사회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조화되어야 함을 전제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철학에 접근하는 일환으로 인간관, 경제관, 환경관을 중심으로 정립해 보고자 하며, 그 원리와 의식화 과정의 기본원리는 우리 민족의 정신사상으로서 뿌리하고 있는 한사상에 있음을 밝혀둔다.

IV. 가정철학의 배경 사상

1. 한국인과 한사상

'한'철학은 우리 고유의 사상이자 현재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정신사상으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의심없이 밝혀지고 있다(최민홍, 1988, 1990; 김상일, 1992, 1995, 1996; 이근철, 1994; 이을호, 1986). 중국에 '道'가 있다면 한국에는 '한'이 있으며, 미국에 pragmatism 이 있고, 이스라엘에 zionism이 있다면 한국에는 한사상(hanism)이 있는 것이다(최민홍, 1988:23). 한철학의 핵이 되는 '한'의 개념은 우

성립되기 위해서는 철학고유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관심이란 근원적인 문제와 대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다. 철학은 근원적인 문제에 관해 회의를 느끼고 근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지반을 발견하며 언제나 새로운 입장에서 철학의 문제를 탐구하는데 철학의 본질이 있다. 이것이 철학의 특성이다. 철학은 인식이나 어떤 것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 방식, 그리고 가치 등을 탐구한다(동아세계대백과 사전, 1983).

2) '한'의 고어적 표기는 '혼'이다.

리민족의 시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정신으로서 이에서 비롯한 한사상은 우리민족이 품어온 세계관 및 인생관을 담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본질은 민족 주체적 자각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근철: 267). 따라서 한사상은 한민족의 정신생활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최세현, 1994:14), 단군의 건국 시부터 정립된, 외래사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한민족의 주체사상이자 정신적 뿌리사상이다. 이에 몇몇 학자들은 ‘한’을 한민족의 생존에 좌우되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역사적으로 ‘한’정신이 강하였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치적 독립성과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나라가 강성하였지만, ‘한’정신이 약해졌을 때는 국가의 독립성과 문화의 자주성을 잃고 나라가 약해졌음을 밝히고 있다(이근철; 김태균, 1992; 김상일, 1992).

한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이란 개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이란 단어는 알타이어계인 몽고어, 한국어에 공통으로 나타나며, 본래 일(一)이라는 셈수에서 나온 것이나, 한국어에서의 ‘한’은 ‘큰’을 뜻하는 것으로 셈수 하나의 의미를 초월한다. 따라서 ‘한’은 크다, 밝다, 환하다, 하나다, 회다, 바르다, 온전하다, 통일하다 등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의 일(一)이란 만물생성의 근본적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노자의 ‘道’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道’나 ‘한’이 모두, 만물의 근본이자, 어디에나 있으며, ‘한없이 크다’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사상에는 한민족의 심오한 주체성이 들어 있어 ‘道’와 구별되기도 한다.³⁾

그리고 간단하게 한의 원리를 말하면 ‘한’의 하나(一)는 본체로서 큰 하나로의 통합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개체로서의 존재 역시 각각을 완성된 하나(一)로 보는 것이다. 이에 한철학은 여러 가지 개체에 대한 관계를 一과 多로 설명한다. 즉 ‘한’에는 종합적인 면으로서의 一이 있고 분석적인 면으로서의 多가 있다. 多는 각각의 하나(一)들이 여러 가지로 전

개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전개하면 끝이 없이 큰 세계로 벌어지지만, 종합하면 고차원적인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한’이란 말 속에는 이렇게 크다(太), 하나다(一) 외에 비어있음(空), 많음(多), 가운데(中), 함께(同)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조화의 철학으로서, 중용과 중도, 그리고 ‘한’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김상일, 1995). 이에 김태균(1992)은 ‘한’에는 통일성과 조화성, 총체성, 초월성, 종합성, 협동성, 평화정신 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전체적인 하나의 입장에서 대립성이나 분열성을 허용하지 않기에 배타와 독선을 용납하지 않는 통일의 정신이라고 하였다.

이런 원리의 한사상의 정신은 단군의 건국시부터 정립되어 홍익인간(弘益人間), 세세이화(在世以化)의 건국이념으로 나타났고, 이후 고구려의 이도여치(以道興治), 신라의 광명이세(光明理世), 고려의 금탑(金塔), 조선의 금척(金尺) 등으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에 면면히 이어져 왔다. 즉 여기서 나타나는 理, 道, 光明, 金 등은 모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밝은 진리와 빛의 상징으로서 ‘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최민홍, 1994; 김태균, 1992; 이근철, 1994).

또한 대한민국에서의 ‘한’이나 한글, 한강, 한밭 등도 모두 ‘크다’는 뜻으로 ‘한’의 사상이 내재된 것이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한사상은 우리의 정신생활과 생활주변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정철학과 한철학

가정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한철학을 그 배경사상으로 보고자 함은 가정철학이 갖는 학문적 성격과, 사회적 맥락에서의 한철학의 유용성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가정철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볼 때, 가정철학은 인류의 복지증진의 실천적 단위를 가정으로 잡

3) 신라의 최치원은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道가 있다’고 난랑비서에 밝혔는데, 이 현묘한 道는 한국의 ‘한’을 중국의 道로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道로서는 충분하지 못한 무언가가 더 있었기에 ‘道’에 ‘현묘한’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이 ‘현묘한 道’는 풍류로 설명되었고 유, 불, 도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최민홍, 1994).

고 가족원의 행복증진을 목표로 하기에 인간수호적 성격과 실천위주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한철학은 인간복지를 향한 실천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한철학은 천, 지, 인의 합일사상을 중심으로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이를 향한 인간의 실천은 곧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한철학의 우주관, 생활관 등은 실천을 전제로 하며 경험을 통해 전승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한'의 정신 속에 살았던 한민족은 문헌위주 보다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이룩한 경험문화를 발달시키게 되었으며, 이런 한민족의 경험문화 속에는 천, 지, 인의 조화를 통한 이상사회 건설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철학은 논리적 측면과 비논리적 측면, 합리적 행동과 비합리적 행동이 다각적으로 혼재되어 펼쳐지는 가정생활을 총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한철학은 입체적 사고로만이 이해될 수 있는 철학으로 양극의 흑백논리를 넘어 가장 적절한 묘리를 찾아 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따라서 서양철학의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체계에서는 전면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다각적인 가정생활이 통일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한사상의 입체적, 통찰적인 사유에서는 모든 면이 수용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의 최적인 방향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철학의 一即多 多即一의 사상은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양면에서 모두 살릴 수 있는 철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즉 가정이란 전체를 위해서 가족구성원을 희생시키거나, 어느 한 가족구성원을 위하여 가정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양극 양분논리를 넘어,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각각의 나이와 성격 등에 의한 특색을 창조적으로 살리면서도 가정이란 하나의 울타리 속으로 조화되고 통일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철학은 가정철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포괄하여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본 한철학의 유용성으로서, 현대 가정철학의배경철학으로서 한철학이 적합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너무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서구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결과 가치관의 혼란과 이로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기계적 세계관,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인간중심주의, 생산력 주의, 경제적 가치 위주 등의 물질중심적 가치에 바탕을 둔 실증주의, 자본주의 사상이 급속한 경제성장 속도와 맞물림에 따라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무차별한 환경 파괴와 적자생존의 논리로 인한 인간소외현상을 가중시키고,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적 자본주의로 변질됨에 따라 금전만능주의, 배금주의적 가치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에 21세기를 앞둔 오늘의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문화와 의식에 있어 개혁과 변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혁과 변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의 문화적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김형효(1994)는 사회의 병리현상을 줄이고 생리현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창조역량과 창의성의 발휘가 필요하며, 이 창의성은 먼저 각자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문화의 결을 잘 인식하여 사회에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오는 다른 이질적 문화의 도전에 선구적으로 대처하는 '최적의 논리'파악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 사회의 개혁의 문제는 창의성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중용'을 겨냥하는 가치판단의 창출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열린 체계 속에서 사회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가정도 변화하는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문화의 역사적 결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철학은 우리민족이 품어온 세계관 및 인생관을 담고 있으며 한민족의 정신생활 전체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한민족의 우주관과 인생관이 개념적으로 표현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세현, 1994:14).

또한 한철학이 주는 의미는 점차 개방적이 되어가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국제적으로도 열린 사회로서 개방적 태도의 삶을 이끌 가치가 필요하다. 한철학은 모든 것을 수용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화시키는 힘

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사상이다.” 그리고 이런 개방적 태도와 함께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이 주체성의 문제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상만을 따르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약화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철학의 적합성이 부각된다. 한철학은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과 같은 민족 고유의 사상일 뿐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와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주체적 사상이기 때문이다.

김상일(1995:21)은 “나라는 ‘한’국,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한’겨레, 그들이 쓰는 말은 ‘한’글,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한’얼이다. 이러한 ‘한’얼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을 한철학이라고 한다.”면서, “우리 한국인의 심성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 있고 깔려 있는 개념이 바로 ‘한’이며, 우리에게서 ‘한’얼이 빠지는 것은 그야말로 얼빠진 허수아비가 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과 얼을 논하는 것에 있어 민족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배타적 국수주의로 오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나’의 뿌리가 되는 민족의 주체성을 먼저 살펴야 하며, 특히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사회일수록 ‘나’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면 ‘나’의 존재가 부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개성이며, 이 개성의 기본은 확실한 자기 정체성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얼’이란 정신, 혼, 님의 의미로 자기정체성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뿌리없는 신념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고, 끝내 그 민족은 쓰러지고 만다.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도 모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의 것을 모방한데서 유래된 가치의 부재에서 생긴 결과이다(이미정, 1992:2).

이런 점에서 한철학은 사물을 총체적으로 보며 인류의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전체성을 갖을 뿐만 아니

라(이근철, 1994:268), 한민족의 얼을 담은 주체적인 사상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인의 가정철학의 배경사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기본원리를 수용하면서 우리들 개인과 가정의 생활 속에서 실천적 행위를 이끌수 있는 가정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V. 현대 가정의 철학적 접근

가정철학은 가정이란 단위적 입장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적 완성을 돕고, 인간과 인간의 본질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친화성을 높이며,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는 운영과 관리의 요체를 열어줄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이 되는 **思考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思考**의 행위를 가정철학이라는 용어로 이름 짓고 그 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사건에 있어서의 가치판단의 근거 기준들을 찾아야 한다. 즉 가정철학의 기본골격을 이를 내용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 속에서 운영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되거나,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우선되어야 결정이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근거들이 명확하게 인식될 때 가정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돈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철학의 목적은 가족원 개개인과 그들의 공동체인 가정의 조화로운 성장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지침이나 사고방식의 기준은 인간의 복지와, 인간적 삶의 완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정철학의 기본골격의 중심은 인간이 되어야 하며, 인간을 중심으로 그 실생활을 응시하여, 그 양상을 철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거기서 체계적인 학문의 확립을 도모하고, 다시 인간생활에 환원하여 인간생활의 충실과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가정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4) 한철학적 정신이 강했을 때 한민족은 유교, 불교, 도교를 자국에 맞추어 조화롭게 수용하였음을 세속오계의 내용이나 훈요10조 등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인간과 인간다움을 그 중심골격으로 놓고, 인간다운 삶의 올바른 전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로 생존에 필수적인 경제생활의 문제, 그리고 현재 삶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실태 측면에서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래 觀이란 나뉠대로의 체계화된 견해를 의미하기도 하며(동아새국어사전, 1994), 사물을 보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물의 내면을 꿰뚫는 통찰력을 뜻하기도 한다(최민홍, 1994:303). 인간은 정신적 존재물로서 행위 속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방법도 생기는 것이기에 觀이 정립되어 있다면 보다 현명하고 체계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사상, 이념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떤 사상, 이념이 사고의 바탕으로 작용하는가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1. 인간관의 정립을 위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물음은 모든 물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또는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인간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의 해결과 전개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 등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레즐리 스티븐슨, 임철규 역, 1990:5).

또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간복지의 방향설정에 근원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이 인간복지의 1차적 장이 되기 위하여 가장철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전개해 나갈 필요

가 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는 수많은 대립적인 견해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견해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무엇을 행하여야 하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레즐리 스티븐슨, 임철규 역:5). 따라서 어떤 견해를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는가는 무척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사상과 단군신화"를 통해 살펴보는 인간관은 바로 고대 한국인들이 생각하였던 인간과 인간다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였던 인간의 본질과 인간다움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한민족은 인간의 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조화라고 보았다. 단군신화의 이상적 인간상인 단군이 하늘의 신인 환웅과 지상의 신인 곰과의 결합으로 출생한다는 것이나,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기이한 탄생신화는 인간이 조화의 산물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⁵⁾

즉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하늘, 이상, 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웅녀는 땅, 현실, 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상적 인간인 단군은 천지와 음양, 그리고 이상과 현실을 같이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고대 한민족이 인간에 관한 정의를 이상이나 현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 내리지 않고, 그 양자를 한몸에 간직하여 조화에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조남국, 1994:41-42). 또한 인간이란 천상의 힘과 지상의 힘이 서로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것이며, 하늘의 마음과 땅의 현실(동물의 본능의 세계)을 결합시키는 자만이 인간을 다스릴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상의 표현이기도 하다(이어령, 1996:21).

인간의 본성이 조화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다

5) 단군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들어 있으며, 그 정신은 후대에 전승되었다. 그 정신이 바로 한사상이다(김태균:26).

6) 신화는 현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한 현실 속에 담겨진 마음의 언어이자 문화의 씨앗과도 같은 근원상징이다. 단군신화에는 태초의 한국인의 마음이자 철학이 들어있다(이어령, 1996:10-11).

운 행동이나 태도를 이끄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다양한 제문제를 조화로움으로 귀납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해석이 인간에게 부여되어야 할 의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조화적 인간상은 개인 내적으로는 육체와 정신적 건강의 조화, 이성과 본능의 조화,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당연히 지향되어야 한다는 사상의 근거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개인과 가족, 개인과 사회 뿐 아니라 가정과 가정,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마저도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적 건강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완벽한 한 인간상으로 부각되며(문수재, 1993:12), 인간 내면의 자아상태를 여러 특징과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론들도 이 자아상태가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기능이 발휘될 때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한국가족관계학회 가족상담사(2급) 연수과정 교재, 1997:40). 따라서 조화로운 인간상을 지향하는 인간관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우리 선조들은 인간존재를 긍정하며 개개의 인간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는 평등한 인간관을 갖고 있었다. 단군신화에서 보여지는 신성족의 후예라는 관념은 인간의 개체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였고, 개개의 존엄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홍익인간이라는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인본주의 정신 속에 이상적인 인간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고대 한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에 건주었으며,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동학의 人乃天사상 역시 인간 개개인에게 '한'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개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의 존엄성이 인정되기에 인간의 관계면에서는 평등관이 나타난다. 따라서 한철학의 평등적 인간관에 의해 나타나는 가족상은 개개인을 억압하지 않는다. 한사상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전일적 입장에서 가족 구성원의 위치를 이해한다. 따라서 가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제각기 자기 위치에서 직분을 다하여 전체구조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이근철, 1994:

160-185).

인간존재의 긍정과 높은 자존감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이 된다. 그런데 자존감의 강화는 어릴 적의 긍정적인 경험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큰 영향을 받기에 가정생활과 큰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문제 가정들의 공통점으로서 가족원 가운데 낮은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건강한 가정들의 공통점으로서 가족원 개개인이 모두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버지니아 사티어, 성문선 역, 1994:16).

어떤 인간관을 가지는가는 집단이나 가족생활의 모습을 다르게 만든다. 그 예로 중국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인간관은 가족관계에서도 上命下復의 상하관계로 구성되는 가족규범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민족 고유의 정신적 맥을 계승한 동학의 人乃天, 事人如天사상은 평등적 수평적 인간관을 발전시켜 인간 상호간의 존경과 신뢰,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 및 사회관계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동학의 侍天主사상은 한울님이 각 개인에의 내재화를 통한 인간존엄성의 확인이라는 원리를 성립시켜 유교적 인간관에서 비롯된 삼종지도와 칠거지악의 굴레를 부정하였다. 또한 아동에게도 사랑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여성과 아동의 위치가 수동적인 위치나 소임부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위치에 있게 하였다(이근철, 1996:185).

세째, 우리 역사에서 보여지는 인간관은 자주적 존재로서, 현세중심적인 실천을 주체적으로 행할 것을 강조한다. 한사상의 보편성에 근거한 평등관과 그 속에서도 개별적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에 근거한 인간관은 도덕이나 수양의 중심이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주성을 지닌 존재이며 선악의 주체자로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다. 즉 인간은 주체적 존재로서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자기구원의 길을 열어야 하며 도덕적 존재로서 자기직업에 충실하여 성인의 도를 닦아야 함을 강조한다(이근철, 1994:172).

이근철(1994:171-185)은 한의 인간관을 잘 반영하

고 있는 것이 실학사상이라고 하였다. 실학은 인간의 의미를 규범적이고 교조적인 성현일반으로 추상화시켜 이해하는 주자학적 인간관을 과감히 부정하였다. 즉 인간이란 구체적인 현실의 事象내지 어떤 사물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존재라고하여 관념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부인한 것이다. 즉 주자학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의미는 규범적이고 교조적인 성현일반으로 추상화됨으로써 이에따라 가족윤리에서는 표준이 강요되며,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의 자아와 주체는 매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아주체가 상실된 인간은 규범적 틀에 얽매인 충실한 가족구성원은 될 수 있어도 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은 가질 수 없다. 이에 반해 실학에서 강조한 인간평등사상과 자주성, 개방성은 개인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단군신화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의 고유사상은 본래 조화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자주성을 지닌 존재로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질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오늘날 요구되는 민주적인 가정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인간을 보는 기본적 관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경제관의 정립을 위하여

고대사회에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육체보존과 정신적 만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 중 오늘날의 경제형태는 시장이라는 기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계, 기업,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나름대로의 경제에 관한 가치관과 그에 따른 경제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제우선, 생산우선의 가치를 추종함에 따라 소비를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이윤획득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중심의 경제관을 보편화시켰다는 것이다. 경쟁원리를 깔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중심의 경제관은 낭비적 소비

를 권장하고, 모든 판단기준을 경제가치에 두어 판단하게 만들었다. 또한 인간 자신이 경제가치에 종속됨으로써 인간의 존재가치조차 상품의 소유와 소비로부터 판단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것은 곧, 오늘날의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활동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소유와 소비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 지식과 노동을 상품으로 파는 소외된 존재로 전락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살림선언, 1989:8).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정철학이 경제관을 정립하려는 목적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기업적 경제관으로부터 구별되는 공존공생의 경제관이 가정의 경제관임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정의 역할을 통해 물질중심적 경제관에서 인간중심적 경제관으로의 사회적 시각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관이란 경제를 보는 눈이다. 경제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경제목적의 범위나 내용도 달라지며 경제활동상의 규범체계도 달라지게 된다. 만일 경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효용과 이윤이 목적이 되며 경제이론 자체가 경제행위에 있어서의 규범체계에 근간을 이루게 된다. 이때의 경제이론은 하나의 과학체계이며 어떤 다른 윤리성이나 가치성은 배제되기에 윤리체계를 따로 요구하지 않게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상징되는 이상적 상태는 완전경쟁을 바탕으로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일반균형의 상태이다(한국국민윤리학회:204-205). 오늘날 사회의 경제체제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서만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경제행위를 경제이외의 또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 단위는 가정경제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의 경제활동은 가족원의 행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 가정에서의 재물의 의미도 축적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인간생활의 수호에 그 참의의가 있는 것이다.⁷⁾ 그리고 이런 상위목적을 갖는 가정경제생활은 사회질서라는 테두리

를 벗어날 수 없기에 이 경우 경제적 규범체제는 경제이론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되며 보다 포괄적인 사회이론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즉 각 가정의 경제적 행위와 사회적 의식간에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가정의 경제관 정립을 위하여 한철학적 경제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철학의 경제관의 기본은 협동심을 바탕으로한 공생공영이다. 즉 서로가 남을 이롭게 하고 자신도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상부상조를 통한 협동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대립과 경쟁 대신에 사회조화를 바탕으로 공영을 위한 공생논리를 추구한다. 한철학적 경제관은 공존공영을 위해서 공동목표의 설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공동목표라 함은 독선과 배타성에서 생기는 폐해를 이해와 협동으로 극소화하여 하나의 전체에 대한 최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전체로서의 집단이 이를 수 있는 효용전체는 개개인의 효용을 가산한 결과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효용을 만든다. 커다란 전체는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이다. 이 전체를 위해 구성원들은 협력관계와 신뢰를 전제로 일을 분담하여 서로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최민홍, 1994:134-137).

그리고 개인 생활의 발전은 사회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말하는 한철학은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사회와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이 상호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간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면 사회가 발전하지 못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인 국민들이 경제적 조화를 상호 이루는 것은 국민경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최민홍, 1990:248-249).

이런 경제관은 각 가정을 단위로 보는 미시적 접

근에서도 적용 될 뿐만 아니라 가정들의 집합체인 사회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유용하다. 사실 미시적 접근으로서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동과 태도가 경쟁적이지 않고 공존공영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동일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경제 행동의 목표로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 이기주의적 경제행위가 사회라는 통합집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내 가족만 잘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에서 부정부패나 투기, 과열과외 등이 만연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과소비나 과시소비를 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⁸⁾

이것의 원인으로는 소비지상주의를 조장했던 기존의 물질적 경제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은 무한하다는 잘못된 자원관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용납되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산업화와 함께 가속화된 편리한 생활에 대한 욕망은 끊임없는 신기술과 이것을 적용한 신제품들을 선호하게 하였으며, 기업들은 ‘새것은 좋은 것, 앞서가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광고로 내보내면서 충동구매를 부추겼다(중앙일보, 1996, 8.12).

자본주의와 대량생산 경제체제 하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떠맡은 가정에게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생활표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게 하였다. 이에 더 나은 생활이란 더 풍요로운 물질적 소유와 소비를 의미했으며, 개인과 가정의 행복과 안전은 풍요로운 물질적 소비에 기초한다고 보았다(Nolen & Stover, 1993).

그러나 이런 소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적 패러다임이 환경자원을 지나치게 파괴함으로써 이제는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적되

7) 인간수호와 재물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主位性을 지닌 가운데 재물의 위치를 정하고, 그 위에 인간생활을 수호하며, 수호해야 하는 의의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세키구치 후사, 1996:182).

8) 이것은 다음의 신문자료를 참고로 한 것이다.

중앙일보, 1996, 6, 25, 새로 쓰는 가정문화 1, 자녀는 가정의 ‘왕’인가
 중앙일보, 1996, 8, 26, 새로 쓰는 가정문화 9, 이웃사촌 이젠 옛말인가
 동아일보, 1996, 8, 9, 과소비 위험수위 넘었다
 중앙일보, 1996, 10, 1, 아픈 경제... 헤픈 가계

기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소비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는 지구적으로 큰 문젯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무한한 소비지향보다 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관이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바탕으로 이윤이나 효용이 목적이 되는 기업경제관에 있어서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서 부각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지점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순재(중앙일보, 1996.8.12)는 현재 사회의 잘못된 소비문화의 처방은 정부, 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의 가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오늘날의 경제문제는 곧 소비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그 해결책은 건전한 소비생활문화의 형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시작되므로 2세대를 위한 부모의 생활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참으로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변을 통해 새로운 소비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가정이란 단위로부터 새로운 경제관에 근거한 새로운 소비문화의 창출 필요성이 지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도 이로운 새로운 경제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경제행위가 편리지향이라는 목표로부터 가족원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수단적 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욕구위계에 따라 상위욕구로 단계이동을 함으로써 발전하기보다는 물질에 기반한 안정과 편의의 욕구를 무한정 팽창시킴으로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자아실현 욕구를 인간적 완성이라고 볼 때 가정은 인간적 완성의 터전이며, 가정에서 운영되는 경제활동은 개개인 가족원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경제활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관은 가정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원에 대한 충분함의 개념을 물질적이며 양적인 개념에서, 보다 정신적인 만족감에 기반한 질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소

비행동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로 인간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미래를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자원관리는 효율성에 그 기준을 두기보다 사회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에서의 재물사용은 참된 가치의 사용재로써의 근원적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하며(세키구치 후사, 1996:180) 가정경제는 가족원들의 생활과 사회를 아울러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속성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윤리적 경제관으로서 오늘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정 필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가정경제를 보는 눈은 사회현상이라는 보다 큰 통찰력 속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개개의 가정경제 행위는 사회적으로 이로운 쪽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기 가족만의 이익과 권위를 추구하는 가족 이기주의적인 경제 행위는 이웃과의 화목을 깨고 불화하게 되며, 커다란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 부정적인 환경으로 되돌아움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에 그들은 경제질서를 위해 이론적인 고찰을 하며 전체로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약을 마련하고 또 규범 속에 이를 확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이런 노력이 우리의 사상적 관점과 그 기본원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사상을 바탕으로 오늘날 요구되는 공존공생의 경제관을 실천적으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환경관의 정립을 위하여

인간은 시간과 더불어 공간 속에 존재한다. 이때 공간의 생활적 용어는 환경이 된다. 환경의 사전적 정의는 ①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사물, ② 유기체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것, ③ 분위기라고 되어 있다(동아새국어사전, 1994). 따라서

가정에서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가정의 분위기 및 생활공간,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자연환경을 포함한다.

특히 오늘날은 생존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과 자연환경과의 유기적인 관련성에 의해 환경의 오염 및 문제가 곧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기오염, 식수오염 등은 각종 공해병을 유발시키고,⁹⁾ 토양오염 등은 먹을거리의 오염으로 순환되어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오염되는 강과 파괴되어 가는 산이 가정과 동떨어진 환경문제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오늘날에는 가정과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가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의 재활용이나 쓰레기의 분리 배출, 환경친화적인 소비행동이나 에너지 절약행동 지침 등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여지는 이런 환경보호 운동들은 실제 생활과 밀착되지 못하고 구호화되거나, 그저 생활에 있어서 지역적인 의식 행위로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환경보호 행동에 따르는 공공 이익에 대한 개인의 진정한 의식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민현선, 이기춘, 1998:217-218).

따라서 가정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법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환경관의 정립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관을 갖는가에 따라 자원을 보는 관점과 가치가 달라지며 이것은 자원사용 방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연스럽게 삶의 양식이나 방향까지도 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유근배(1997)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

인 대안은 검소한 생활양식이며 이것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에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이며 어려운 문제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였다.

이에 가정철학은 기존의 물질 소비중심의 생활을 환경친화적이며 검소한 생활양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환경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환경관이란 어떤 것인가?

본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생활에 깔려 있는 파괴적인 환경관과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런 환경관이 진행된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오늘날 요구되는 새로운 대안적 환경관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원래 인간은 자연생태계의 한 요소로서 생태적 균형이 유지되는 순환체계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전¹⁰⁾과 이에 따른 공업화가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촉진되기 시작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파괴행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공업화의 목적은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에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자연의 파괴는 자원의 이용이라는 미명아래 합리화되곤 했다. 그 결과 생태적 질서의 파괴는 가속되어 왔고 마침내 전체적인 지구의 생태적 질서가 도그마에 오르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임길진(1997)은 오늘날의 환경위기에 대해 서양정신과 기술문명의 상호관계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조명되지 않고서는 분명히 파악될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화이트(Lynn white, Jr.)는 서구적 자연관에 생태

9)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도는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악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급성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며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아황산가스(SO₂)는 OECD국가 중 그 배출량이 첫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급성호흡기 진환과 폐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일보, 1998, 3, 31).

10) 오늘날의 환경관에 영향을 미친 기계론적 과학의 관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서양의 고대 이후로 과학의 목표는 자연 질서를 이해하고 그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에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런 자세는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그 반대의 극으로 치달았다. 과학의 경험적 접근법을 조리하는 이론으로 정립한 최초의 인물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개를 풀어서 잡아 묶어 봉사할 하도록 하고 노예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과학자의 목표는 ‘자연을 고문하여 그 비밀을 빼앗아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F.카프라, 홍동선 역, 1995:265-266쪽).

적 위기의 책임을 돌리면서, 오늘날 인류가 당하고 있는 생태적 위기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과 그 적용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환경에 대해 인간이 취하는 행위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 또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해 내기까지는 제 아무리 많은 과학기술이 적용되어도 소용없다고 하였다(임길진, 1997:68).

결국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존중의 자연관, 겸허한 자연관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이 주장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세계적으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동양철학적 자연관이다.

서양의 문화와 사상은 신과 자연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중심주의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이로부터 인간의 자아의식, 자유의식을 확립하는 동시에, 객체로서의 자연에 기계론적 법칙에 근거한 자연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자연정복의 기술문명을 발전시켰다. 반면에 동양 문화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분리 대립이라는 관념이 내재하지 않았으며, 이론적 지적이나 태도도 있지 않았다(이근철, 1994:168). 그러나 동양철학적 관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동양의 자연신관은 모든 산천과 생물을 신격화함으로써 자연정복을 하지 못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김상일, 1995:178).

김상일(1995)은 이런 인간중심적인 서구적 자연관과, 애니미즘적인 동양의 자연신관이 모두 극단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사상으로 한사상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사상에서 보여지는 자연관과 인간관은 무조건적인 자연 숭배나 인간 우월주의에 치우치지 않은 조화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사상의 자연관을 요약하면, 그 특징은 통합적이고 전체론적인 견지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한다. 이때의 조화란 동양철학처럼 단순히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교섭하는 것을 뜻한다.¹¹⁾ 즉 우리 역사에 있어 '천명에 응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을 거스르거나 자연에서 소외된 인간이 되기를 거부한 것으로서, 자연과 교감하려면 우선 인간은 인간으로서 있어야 하며,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대립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들추어 내고 그와 어울리는 한 주체자로서는 것을 의미한다(이근철:193). 그리고 이렇게 어울리는 과정인, 각각의 생명이 개체(一)와 전체(多)의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조화되는 가운데 그 기쁨과 지속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위기로 인하여 21세기에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반성이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중심주의로의 탈피와 생태학적 입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중심주의적 세계관으로의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박이문, 1993; 유영주, 이정연, 1995:225 재인용) 그러나 이것은 과거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무위나 순리와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용하게 하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과거 神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선언하였듯이 새로운 전체론적인 관점을 능동적,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유영주, 이정연, 1995:225).

이런 측면에서 한사상의 환경관은 오늘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될 가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관이 정립된다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同一體의 식에서 이해될 것이며, 자연은 인간적 삶을 생성, 발전시키는 동반자로서의 생명력으로 존중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연환경에 대해 도구적, 자본적 가치를 부여해 바라보기 보다는 생명적 가치를 지닌 생물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생명중심적 환경관은 자원고갈의 시대에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특히 가정에 흐르는 원리는 본래 자본중심적이라기 보다는 생명중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런 생명중

11) 이어령(1991)은 이것을 '靈通'의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이것을 '感通'이라는 불교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시적 환경관이 가정에서부터 그 터전을 잡는 것은 가장 실현가능하며, 이것은 또한 가정이 다음세대에게 생활의 기본적 원리를 훈련하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VI. 결 론

본연구는 오늘날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가정문제가 현사회에 요구되는 가족가치, 혹은 가정 이념의 부재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체자로서 자녀야 할 가정철학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런 성격의 가정철학은 오늘의 사회상에 적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라날 자녀세대까지 고려한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복잡다단한 가정생활의 전면에 적용될수 있도록 폭넓은 범위를 갖추어야 하며, 사회와 가정의 상호작용이 더욱 개방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통찰력과 함께, 생활실천을 위한 기본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철학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으로서 모든 차별적인 것들의 본질을 '혼'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긍정하고 포괄하며, 종합하여 다시 큰 하나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조화시키는 원리를 지닌 철학으로서, 一即多 多即一 원리는 전체와 개체의 조화를 지향하며, 그 조화의 실현 방법은 전체라는 통찰적 견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철학의 원리는 공동체적 가치가 붕괴되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오늘날의 시대상황에서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가정의 관계, 그리고 하나의 가정과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가족원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줄수 있다. 그뿐 아니라 오늘과 같은 환경위기 시대에 사람과 사물의 관계, 사람과 환경의 관계에서도 유익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본연구의 가정철학의 근간이 되는 인간관, 경제관, 환경관을 고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본성은 인간다운 행동이나 태도를 이끄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화성을 본성으로 하는 인간관을 정립할 때 인간다운 의미는 육체와 정신,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인간 존재를 긍정함으로써 개개의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며, 모든 인간이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인간관을 형성 할수 있다. 또한 자주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주체적인 자아실현의 실천을 강조한다.

둘째, 가정의 경제관은 협동심을 바탕으로 한 공생공영의 경제관으로 미시적으로는 개개인 가족원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경제활동이 되어야 하며, 거시적으로는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통찰하여 사회 전체와 조화로운 경제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즉 공생공영의 경제관은 사회적인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윤리적 경제행위가 결국 자기 가족에게 이익이 됨을 알아 이기주의적 경제행위, 과소비, 그리고 과시소비를 행하기 보다는 검소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한다.

셋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동일체 의식에서 이해하고, 자연을 인간의 삶을 생성, 발전시키는 동반자로서의 생명력으로 존중하는 생태적 환경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이 자연환경의 생명적 가치를 중시할 때 오늘날과 같은 환경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사회적 주체로 역할 할수 있으며, 앞으로의 환경사회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다.

위와같은 인간관, 경제관, 환경관의 정립은 오늘날 겪고 있는 인간소외, 인간성 상실,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가정에서부터 바로 잡고, 가정이란 실천적 단위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주의, 편리주의, 과소비 등의 이기주의적 경제행위를 수정할수 있는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환경과 더불어 사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사려된다.

【참 고 문 헌】

- 1) 공인숙·노영주·성미애·송혜림·이승미·이완정·최연실(1996). “기술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인간으로”.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가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pp26-39.
- 2) 김상일(1995). 한철학. 서울:은누리.
- 3) 김상일·오강남·이성은 편저(1990). 한사상의 이론과 실제. 서울:지식산업사.
- 4) 김태균(1992). 현대사회와 한국정신. 서울:백산출판사.
- 5) 김형효(1994). “한국문화의 생리와 병리에 대한 철학적 담론”. 한국문화의 진단과 21세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소, pp3-119.
- 6) 동아새국어사전(1994). 서울:동아출판사.
- 7) 동아세계대백과 사전(1983). 서울:동아출판사.
- 8) 레즐리 스티븐슨, 임철규 역(1990).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일곱가지 이론. 서울:종로서적.
- 9) 문수재(1993). 가정학의 새로운 접근. 서울:수학사.
- 10) 민현선·이기춘(1998).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 한국소비자학회 자료집. 1998.6. pp217-218.
- 11) 버지니아 사티어, 성문선 역(1994). 사람만들기. 서울:홍익사.
- 12) 세키구치 후사의 편저. 김외숙, 장용선 공역(1996). 가정철학. 서울:교문사.
- 13)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6).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경문사.
- 14) 유영주·이정연(1995). 가정학원론. 서울:신광출판사.
- 15) 윤서석(1981). “한국 가정학의 역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4호, pp101-114.
- 16) 이근철(1994). 한국사상과 윤리-한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보경문화사.
- 17) 이미정(1992). 도덕교육에 있어서의 한사상의 의의. 경상대 석사논문.
- 18) 이어령(1996). 한국인의 신화. 서울:서문당.
- 19) 임길진(1997). 미래를 향한 인간적 계획론-계획이론의 종합. 서울:나남.
- 20) 최민홍(1988). 한철학과 현대사회. 서울:성문사.
- 21) _____(1994). 한철학 논문선집 권1. 한국철학연구 제23집. 해동철학회.
- 22) 최세현(1994). 한사상과 한국의 전통사상-평화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 23) 한국가족관계학회(1997). 가족상담사(2급) 연수 과정교재-상담이론.
- 24) 한국민윤리학회(1989). 사회사상과 윤리. 서울:형설출판사.
- 25) 한살림선언(1989). 서울:한살림모임.
- 26) F. 카프라(1995)저, 홍동선 역. 탁월한 지혜. 서울:범양사출판부.
- 27) Nolen & Stover(1993) : Promoting A New Economic Paradigm, pp.3-7.